

		<h1>보도자료</h1>		청년이 강한 민주당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단체명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위원회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위원장	국회의원 장경태	연락처	010-8980-1888	
담당자	사무처장 김윤서	E-mail	youthminjooparty@naver.com	
사진	<input type="checkbox"/>	영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자회견문 전문, 사진 자료
<p> 민주시민으로서 모든 고3 우열의 가치 따질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고3 5인 기자회견 열어 </p>				

■ 민주당 고3 5인방, 시민에게 열등의 낙인 찍은 이준석 당대표 비판
 - 민주시민 동등한 권리와 지위 지녀, 전체주의 바탕으로한 우월주의적 사고관
 경계해야

- 더불어민주당 고3 당원 5인(김도균, 서준서, 이정인, 임재영, 황태규)은 중앙선대위 청년위원장 장경태 의원과 함께 8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지닌 민주시민에게 열등의 낙인을 찍은 이준석 국민 의힘 당대표를 비판했다.
- 김 군 등 5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고3과 민주당 고3은 모두 우열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며 동등한 권리와 지위에 대해 언급하고 이 당대표에게 “전체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생학적 사고관이 엿보인다.”라며 따끔하게 충고했다.
- 또한 이들은 이 당대표가 지난 6월 당대표 취임사에서 사회구성원들의 개성이 존중받는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을 언급하고 “이 당대표가 공존 보다는 반목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일침했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위원장 장경태 의원(동대문을)은 “대선이 목전이라 한들 정치판이 비호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그만큼 긴박한 상황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미성년자에게 우월과 열등의 딱지를 붙이는 건 동등한 민주시민으로서 옳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며 “꼭 언젠가는 후보 연설문을 쓰고 후보 지지 연설을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김민규 군을 추켜세운 바 있다.
- 덧붙여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젠더 갈라치기를 넘어 이제는 고3도 ‘우리 고3’과 ‘민주당 고3’으로 나뉘는 것이냐”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 이 당대표는 “우리 고 3당원 기 살려준 건데”라고 답해 비난을 받았다.

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위원회

■붙임 1. 기자회견 전문

“야만의 단어로 구태 DNA를 드러낸 이준석 대표는 공존의 가치를 먼저 배우고 오십시오. “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합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개인 SNS에 게시한 발언입니다.

발언 이후 논란이 되며 세간의 비판을 받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끝내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듯 오히려 뻔뻔한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제1야당의 당 대표로써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지난 6월,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 취임사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개성이 존중받는 공존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공존은 말 그대로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여진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웅색한 변명을 덧붙여도 자신이 공존보다는 반목을 추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의원의 부재로 젊은 표가 필요했던 것 입니까. 아니면, 청년 지지층의 대거 이탈로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국민 갈라치기였습니까.

대한민국의 고3을 우월감으로 갈라치기하는 제1야당의 젊은 당 대표에게서
말아본 적 없는 오만과, 모순의 냄새만이 느껴집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우월이라는 단어는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가진 민주시민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월과 열등의 낙인을 찍는 이준석 대표에게서 전체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월주의적 사고관이 엿보입니다.

국민의힘 고3과 민주당 고3은 모두 우열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은 다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은 항상 같습니다. 은연 중에 속내를 내비친 이준석 대표는 반민주적 사고방식을 성찰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하여 민주주의의 덕목인 공존의 참뜻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붙임 2. 사진



